

‘90분 무승부’ 연변팀, 승부차기 끝에 축구협회컵 탈락

1라운드 만에 축구협회컵 일정 마무리

15일 오후 2시에 펼쳐진 2024 중국 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상해장녕팀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정규시간에 1대1로 비키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결국 아마추어팀에 패하며 축구협회컵을 마무리했다.

이날 연변팀은 어린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켰다. 2번 리아남이 골키퍼로 나선 가운데 5번 리달, 26번 허문광, 2번 현지진, 33번 리금우가 수비라인을 구성했고 18번 루통카이저와 6번 리강, 14번 리롱

과 29번 류박, 13번 림태준이 중원을 구성했다. 16번 왕빈한이 원톱으로 나서며 4-2-3-1 전형으로 시작했다.

연변팀은 29분경 현지진이 측면에서 박스 안에 넣어준 공을 리롱이 차넣으며 한풀 앞서갔다.

후반 들어 뜻밖의 반가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올 시즌 갑급리그 제1라운드 경기에서 부상으로 내려간 뒤 골출 출전하지 못하던 양경범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나타난 것. 2개월여 만에 복귀한 양경범은 13번 림태

준을 교체하여 출전했다.

하지만 66분경 상해장녕팀이 박스내 강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고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막바지 시간에 연변팀은 17번 리세빈, 30번 왕박호, 20번 김태연 등 선수들을 투입하며 추격에 나섰다. 추가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두 팀은 잔인한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승부차기에서 연변팀은 첫번째와 두번째 주자가 연이어 실축하면서 열세에 처했고 한풀 뒤진 상태로 제5라운드에서 상대 선수가 실축한

기회에 현지진이 침착하게 차넣으며 겨우 3:3으로 균형을 맞췄다. 이어 제6라운드에 두 팀 모두 성공했고 제7라운드에 상해팀이 또 득점에 성공한 가운데 우리의 키커 루통카이저가 실축했다. 결국 페널티킥 점수 5:4, 총점 6:5로 연변팀은 아마추어 축구팀에 패배했다.

1라운드 만에 축구협회컵을 마무리한 연변팀은 오는 25일 홈에서 강서려산과 갑급리그 제11라운드 홈전을 펼친다. /종합

U-19 남자축구팀 소집 명단에 연변팀 왕박호 승선



지난 3월 30일에 펼쳐진 갑급리그 제4라운드 대 상해가정팀 원정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왕박호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공식계정

중국축구협회가 발표한 2005년령대 남자축구 소집 명단에 연변팀의 왕박호가 이름을 올렸다.

중국축구협회는 17일 저녁에 공지를 발부해 2024년 U-20 아시안컵 예선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연구와 중국축구협회의 승인을 거쳐 U-19 남자축구 대표팀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항하국가축구훈련기지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심사성 위남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해신화, 상해해항, 북경국안, 성토평성, 산둥태산 등 슈퍼리그팀들과 연변룡정, 흑룡강방성, 대련영박 등 갑급리그팀들에서 차출된 37명의 선수가 이번 대표팀 소집 명단에 들었다.

이에 앞선 보도에 따르면 중국 U-19 남자축구팀은 항하기지에서 만마팀과 2차례 비공개 친선경기를 가진 뒤 위남으로 가서 4개국 대회

에 참가하게 된다.

한편 중국축구협회는 14일 공식채널을 통해 ‘중국국제축구친선대회 위남 2024’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축구협회, 심사성체육국, 위남시인민정부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심사성 위남시에서 진행된다. 참가팀은 중국, 한국, 월남, 우즈베키스탄 4개국의 U-19 국가대표이다.

중국 U-19 국가대표는 세르비아적 줄비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올해 9월 U-20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할 선수들로 맞춰 이번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중국 U-19 위남 4개국 경기 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6월 4일 19:35 중국 U-19 vs 월남 U-19

6월 7일 19:35 중국 U-19 vs 우즈베키스탄 U-19

6월 10일 19:35 중국 U-19 vs 한국 U-19

/ 김가혜기자

장춘팀 경기 99분경에 극적인 추가골... 첫 홈장승



어려운 경기에 중요한 승리였다. 후반 추가시간이 9분 주어진 가운데 장춘아태팀(이하 ‘장춘팀’)은 93분경 상대팀에 동점골을 허락했다. 경기가 이대로 무승부로 종료되나 싶었다. 그런데 경기 99분경에 ‘페널티킥 극장골’을 성공시키면서 결국은 북경국안팀(이하 ‘북경팀’)을 3대2로 꺾고 리그 첫 홈장 승리로 남령경기장을 장식했다.

5월 17일 저녁 20시, 중국 슈퍼리그 제12라운드 경기에서 장춘팀은 1승이 귀한 시점에 ‘강팀 사냥’에 성공했다. 비록 근무일이지만 여전히 1만 8,000여명의 축구팬들이 남령경기장에 몰렸고 사뭇 감동은 경기전 “우리는 홈에서 그 어떤 팀과도 맞설 수 있다.”고 강조한 넘치는 자신감을 선수들과 함께 보여주었다. 이날 장춘팀은 4-1-4-1 전형으로 돌진해 패스했고 세르지뉴가 이를 따라붙어 선제골을 넣었다. 장춘팀은 두 용병의 개인 기량을 동반한 득점으로 분위기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반 30분, 북경팀

용병 파비오가 헤딩으로 한풀을 만회하며 리그 5연승 팀의 만만치 않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후반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장춘팀은 67분경에 길레르메의 낮은 슈트로 다시 한번 리드를 잡았다. 이후 장춘팀 선수들은 90분까지 선두를 유지했다. 하지만 9분의 추가시간 동안 경기장을 놀라게 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후반 경기 추가시간 3분경, 북경팀의 세트피스가 페널티지역 최전방까지 길게 연결되고 마마두가 날린 헤딩을 파비오가 문전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었다. 그렇게 장춘팀이 다시 홈장에서 승리를 놓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때 추가시간 9분경, 왕진현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장원에게 걸려 넘어졌고 주심은 VAR 판독 후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장춘팀 조이는 심적 부담을 이겨내고 시원한 ‘페널티킥 극장골’로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장춘팀 조선족 선수인 원민성이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북경팀의 조선족 선수 지충국은 부상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5월 22일 19시 35분, 중국 슈퍼리그 제13라운드 경기에서 장춘팀은 청도서해안팀과 원정경기를 치르게 된다. /글 오건기자

/ 사진 류향희기자



5월 13일, 2024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프로구단 U-15조) 토너먼트단계 제3라운드 경기에서 장춘아태 U-15팀은 천진진문호 U-15팀을 2대0으로 꺾고 본선단계에 진출했다.

2024 중국축구협회 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는 도태전과 본선 두 단계로 나뉜다. 도태전은 5월 7일 무한과 유방(潍坊) 두 지역에서 개막되었으며 13개 중국 슈퍼리그팀, 4개 중국 갑급리그팀, 2개 중국 을급리그팀들이 4개 소조로 나뉘어 단순한 경기를 펼쳤다.

추첨 결과에 따르면 장춘아태

U-15팀은 유방경기구의 C조에 속했다. 도태전 경기에서 장춘아태 청소년축구 선수들은 청도해우팀에 0대1로 패하고 룽닝철인팀과 2대2로 비겼으며 천진진문호팀을 2대0으로 꺾고 1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C조 2위를 차지해 본선단계에 진출했다.

14일, 아태정월기지로 돌아온 장춘아태 U-15팀은 9월 10일에 시작되는 프로구단 U-15조 본선 제1단계 경기를 준비중이다. /오건기자

/ 사진 장춘아태축구구락부

장춘아태 길림농업대학여자축구팀, 전국여자축구 을급리그 출전

5월 20일, 2024년 전국여자축구 을급리그 소조 경기가 복건 장주와 룽닝 대련에서 펼쳐진 가운데 장춘아태 길림농업대학여자축구팀이 네번째로 출전을 하게 됐다.

2024년 여자축구 을급리그는 총 26개 팀이 참가하며 지난 시즌 순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추첨을 통해 5개 조로 나누었다. 추첨 결과 장춘아태 길림농업대학 여자축구팀은 제3단계 팀으로 B조에 분류, 북경국안 수도체육학 원여자축구팀, 호남공업대학여자 축구팀, 매주가응여자축구팀, 사천의주원여자축구팀과 같은 조에 들었다.

경기 규칙에 따라 소조 경기는 단 순환제를 채용하여 조 순위를 결정하



고 매개 조 3위권과 성적이 가장 좋은 조 4위가 순위전에 진입하게 된

다. 순위 결정전은 올해 8월에 펼쳐지게 된다.

/ 장춘아태축구구락부

돈화시 ‘5.17 자전거 타는 날’ 행사 개최

5월 17일, 돈화시문화라지오텔 레비존방송및관광국(체육국)에서 주최하고 돈화시체육총회에서 주관, 돈화시자전거협회에서 협조한 돈화시 ‘5.17 자전거 타는 날’ 행사가 림강팜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사이클링 애호가들이 산뜻한 자

전거 복장을 차려입고 초여름의 미풍 속에서 자유롭게 질주하는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다.

‘5.17 자전거 타는 날’ 행사는 돈화시자전거협회가 전민건강운동 호소에 호응하여 개최한 녹색기행(绿色

骑行) 활동으로서 저탄소생활, 녹색출행, 전민건강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이 행사는 광범한 호응을 받았으며 도시 속에서 사이클링 애호가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건강환경보호와 고품질의 도시생활 리념을 창도함

과 더불어 도시의 녹색문명 형상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전거 타기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신체소질을 제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돈화 시민들의 적극적으로고도 건강하며 활력이 넘치는 정신면모도 보여주었다. /길림일보

